



특별인터뷰

송우6리시장일대 환경개선위원회 회장 이기양

“장기未집행도시계획지역 開發해 주세요”

송우6리 시장 일대 발전은 곧 포천시 發展



특히 이 지역 일대는 도시계획지역으로 20여 년간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으로 ‘송우리 할렘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졌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이 계획은 20여년이나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이 일대 건물주와 상인들로 구성된 송우6리 시장일대 환경개선위원회 이기양 회장으로 부터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은 이기양 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주)

▶위원회 창립 목적은?

기존상인들의 상가변영과 주변 환경 개선에 있다. 다같이 잘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장 상가 주인과 재래시장 상인과 새마을 주민들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위원회 설립 목적이었다.

▶시장중심에 위치한 정자나무 베기?

20~30년 동안 불편을 참아온 것은 어른들의 여를칠 더위를 피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참아왔는데 올 여름이나 지나고 9월쯤에 베기로 결정했다.

▶상인회 등록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상인

회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 맞지 않아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대책은?

7월10일 오후4시 포천시장을 만나기로 했다. 환경개선위원회 결성과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도 포천시의 의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송우4거리 횡단보도 설치의 건은?

포천시에 민원접수해 포천경찰서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송우사거리 의정부에서 포천 방향으로 가는 도로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

▶신설 도로를 점하고 있는 5일장 대한 대책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받은 장날에 장 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존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더불어 사는 송우 6리 주민들과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문제를 분석하

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임원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신경 좀 써달라. 결집돼 아우성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신경을 쓰는 것 같다.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대표를 맡은 것이다. 시장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그동안 한번도 부탁한 적 없다.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7월10일 포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하겠다. 그동안에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포천시의 앞으로 계획을 들여보고 그 계획에 맞춰 위 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겠다. 송우6리 시장일대가 발전하는 것은 곧 포천시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34 고려산업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나무상자 생산



대표 강승원

상품의 보호와 유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포장의 종류는 다양하다. “포장이 곧 상품이다”라는 말이 설명하듯 모든 상품은 포장이 매우 중요하다. 세련된 디자인과 화려함을 겸비한 포장재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야기 시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종이나 비닐,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포장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상품의 고급화에 따라 포장재의 용도는 다양해지고 있다. 포장재도 품격이 있듯이 고려산업(포천시 가

결이 자연미를 더해주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제품의 품위를 높여주는 훌륭한 포장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고려산업은 질 좋은 원자재 사용과 중후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경제적인 가격을 추구하며 성실한 제작으로 고객의 상품에 가치를 더해줌과 판매를 촉진해주는 유통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

‘최고의 상품은 귀사에서 최고의 상품포장은 고려산업에서’란 가치아래 신선한 아이디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양질의 포장재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무상자를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와인, 민속주, 식품, 커피, 제약회사 등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지만 주로 식품업체나 주조회사 등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품평한 제작,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나라식품, 신동와인, 진로 등 약 40여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고려산업의 자랑이다.

강 대표는 “상품의 고급화 추세로 나무상자를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신제품개발과 연구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려산업은 5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나무상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실크인쇄, 불박, 금박 등의 로고를 고객에 원하는 대로 새겨주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의뢰한 제품은 꼼꼼하게 체크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포장분야 특허 3개 보유 세련된 디자인 · 저렴한 가격 · 정확한 납기 자랑

산면 가산2리 379. 대표 강승원)은 오통나무, 미송, 호도나무, 향나무, 스키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이용한 포장으로 제품의 품위와 안전성을 더해 주는 나무상자를 생산하며 내실 있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제품의 기획에서 디자인, 금박, 불박, 실크인쇄까지 완벽한 시스템으로 상품의 가치를 더해 주고 있는 고려산업은 지난 2002년 위 곳에 문을 열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무를 이용한 나무상자 포장은 은은한 나무

샘플을 제작한 후 업체의 OK 승인을 받은 후 생산하기 때문에 하자 없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명인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며 협력업체들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강 대표는 향후 계획으로 불투명 포장을 병행하는 사업 구성으로 보장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의 전문직 직원들과 고객이 원하는 포장재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문의 : Tel 031) 543-8383, 8336
HP. 011-9000-4794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포장에도 품격이 있듯이 고려산업은 오통나무, 미송, 호도나무, 향나무, 스키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이용한 포장으로 제품의 품위와 안전성을 더해 주는 나무상자를 생산하며 내실 있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1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으로 구성돼 있다. 이 환경 가운데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방법의 하나인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금융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어떻게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등 요즘 들어 TV에서 금융지식 이야기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이들이 금융에 관한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금융시장은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특히, IMF시련을 잘 이겨내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선진국 경제 환경이 되었다. 그럼 금융시장의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저성장 시장의 도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시대의 도래, 다양한 투자형 상품의 등장 등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요인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 주치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살고 있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애, 하루살이야 오늘은 해가 지고 있으니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래? 나는 내일을 몰라. 오늘 나는 죽어야 해.” 하루를 살고 죽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바다의 한 가운데서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목표를 향해서 노를 저어 항해해 나가고 있었다. 이 바다 안에서 가족을 태우고 노를 저어 배를 이끌어 가는 것은 가장의 몫이다. 그러나 바다에는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중에는 바다에 떨어져 사라지는 사람도 가끔 있

하루살이의 내일?

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와 함께 보다 흔한 배에 오빠들이 바다에 떨어져 사라져 가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빠대신 배를 젓는 사람들이 많아 아빠를 잃어버린 가족들이라든 그들 가족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 그들 가족의 꿈과 목표는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커다란 배에 승선할 수 있는 표가 바로 보험이라는 안정된 표이다. 요즘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한 두 개의 상품을 또는 대 여섯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금융교육 및 재테크에 관한 TV프로그램의 유

행, 각종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상품, 홈쇼핑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품광고 등으로 고객이 스스로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게 되면서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부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 복지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금부터 가입을 하고 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질병 등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영업소 매니저 010-3023-0065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은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의 관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3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세방안 :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 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김성실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사다리 위에서 백열전등 교체 중 감전 후 추락

▶재해발생개요

2005년 8월 2일 10시 50분 경 00개발(주)이 시공하는 00아파트현장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조직공인 피재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캐리를 트레이에 걸쳐 놓고 사다리에서 천정에 설치된 백열전등 교체를 위하여 풀던 중 백열전등 충전부에 감전된 후 약 3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당해 전로의 정전조치 미 실시

-활동상태에서 전등 교체작업 등으로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정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직공인 피재자 임의로 전등 교체작업 실시. 나.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임시배선의 전로인 가설전등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재자 감전시 통전전류가 210mA정도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할 때 신속하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음.
다. 작업에 적합한 조도 미확보
지하층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각종 전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870-4484 - 4487/4502 - 4507



되지 않음.

▶중재예예방대책

가. 당해 전로의 정전조치 실시
하절기로 인하여 지하층이 습윤하고 작업자의 땀이 많은 상태 등을 감안, 활동상태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할 때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누전차단기 사용전 점검 철저
가설전등 및 전기기계·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하여야 함.
다. 작업에 적합한 조도 확보
지하층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각종 전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적합한 조도(보통작업 150Lux 이상)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외국인 가입자를 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나?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 ... 0년 이상 가입외국인 연금 지급 불법 체류자는 제외 ... 남아공 등 18개국도 적용 안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국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연금이 승계된다. 다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돼야 한다. 다만, 상호주의를 채택해 어떤 나라의 본국법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상응하는 그 나라의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을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한다. A국가가 A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A 국가 국민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다.
지역가입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신고안 내를 하고 있으면 외국인지역가입자 소득월

액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연직용 사업장에 외국인인 입사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별도의 취득신고서가 있음)’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장 고지서에 함께 고지된다.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
외국인의 자격상실 사유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적용국과 제외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적용되는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영국, 홍콩 등 59개국.
사업장가입자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안 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 대만, 레바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태국, 페루 등 42개국이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불가능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18개국이다.
지역가입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신고안 내를 하고 있으면 외국인지역가입자 소득월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